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 · 보장성 확대 노력”

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발언

“가계 의료비 부담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 더 강화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치과 신경치료 부담 감소
소득 낮을수록 의료비 더 지원… 지원 비율 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고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난 9월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 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이날 별도 행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2019년 7월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정책 성과를 적극 알리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해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도료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질환 중증 진단,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 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 재정 안정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격저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생활 속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혜택 체감자들이 시를 읊어달라며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차례 함양치료 끝에 혈액암을 극복하고 도쿄올림픽 시상대 올라 인간 승리 감동을 안겨준 남자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에게 “암도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는 인선수의 응원이 많은 힘을 주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 큰 힘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인 선수의 건강과 앞으로 활약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망막박리 질환까지 얻은 유튜버 정원희씨의 건보 도움 치료 사례에 대해 “지난해부터 중증 아토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소노동자들에게도 아토피 보험 적용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에서 잘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돼야 한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없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도내 장애인 재활 전담 공공의료기반 구축”

민주 김성주 의원 ‘예수병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선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은 “전북지역 장애인의 장애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공공재활 의료기반이 구축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전북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선정을 적극 환영했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6월에 진행했던 2021년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결과 전주 예수병원을 전북 권역재활병원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역재활병원은 지역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집중재활 치료서비스, 장애인 건강검진, 방문재활 등 종합적인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7개 권역재활병원을 건립·운영 중이며, 충남권·전남권에 2개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20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아직 권역재활병원이 없는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재활의료서비스 수요를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전북 권역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예수병원 내 부지에 총사업비 270여억원을 투입해 150병상 이상 규모로 재활병원을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북 권역재활병원이 완공되면 지역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까지 먼 길을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청렴인 육성 · 부패방지 활동 지원

김제시, 청렴인증기관 선정...부패방지국민총연합회와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1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로부터 부패방지 청렴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상임대표 원덕호)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신뢰있는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청렴인 육성, 부패방지 활동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한 공동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지역사회 청렴생태계 환경조성 및 부패방지 청렴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금번 협약으로 김제시에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는 지금까지 청렴 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300여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연합회와 UN국제부패방지위원회 기법 조적위원회가 수여하는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도 전달받았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내빈들과 양



김제시가 1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신뢰있는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청렴인 육성, 부패방지 활동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있어 도내 최고등급인 2등급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

부패방지 방송미디어 김창윤 전북본부장은 “전라북도 타도시에 비해 청렴도가 절실한 시점에서 청렴

문화 확산활동과 직무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렴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김제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 덕목이며 공직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협력의 긴밀히 함으로써 공정함을 바탕으로 정의가 바로서는 김제시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제시·곽도태 기자



강승원 전주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18명의 전주시의원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전북이 키운 준비된 대선 후보’라며 공식 지지했다.

“전북이 키운 준비된 대선 후보”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18명, 정세균 전 총리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정세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강승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18명의 시의원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전북이 키운 준비된 대선 후보”라며 공식 지지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키운 준비된 대통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의 심장이자 중심인 전북이 키운 준비된 대선 후보가 있음에도 다른 후보 눈치를 보고 줄을 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졌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며 “누구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수소·탄소산업의 중심지 공공의대 설립, 새금급 신공항 건립 등 전북발전을 약속하지만 정세균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세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의원은 강동화 의장을 비롯해 강승원·김남규·김승섭·김윤권·김진욱·김현덕·김호성·박병술·박진전·박운정·박희배·서남이·송상준·송영진·이경신·이윤자·최명철 의원 등이다.

한편 이재명 캠프의 조직본부장을 맡으면서 노선을 달리한 김윤덕 의원의 지역구(전주시 갑)인 중앙, 풍남, 노송, 완산, 동·서서화동, 중화산동, 평화·2동 시의원들은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김윤상 기자

독립운동 자금미련 ‘독립공채’ 제1호 등 원본 60매 첫 공개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독립공채’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8·15 광복절을 맞아 1919년 9월1일 발행된 독립공채 원본 60매와 소유자 15명의 명단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에 공개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소장하고 있던 독립공채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립공채는 1919년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 상하이와 미국 하와이에서 각각 원화와 달러화로 표시해 발행한 채권이다. /뉴시스

최훈 행정부지사 17일 이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북도 제41대 최훈 행정부지사가 8월 17일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1년의 행정부지사 임기를 마무리하고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최 부지사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취임식도 생략한 채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여간 율 들

없이 도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왔다. 취임기간 동안 도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친화력 그리고 직원과의 격 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사상 첫 국가예산 8조 원 시대의 전박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해왔다. /유호상 기자

최 부지사는 “내 고향 전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송하진 지사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성과를 내준 공직자들과 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 코로나 19로 직원들과 좀 더 열정적으로 즐겁게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